

고창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본 복원한다

최근 영인본 매입해 복원 작업 가시화... 목판인쇄 높은 가치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 이후 서역 및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기술한 <석씨원류> 목판본의 원형복구에 나섰다.

<석씨원류>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이후 서역과 중국에서 불법이 전파된 사실을 목각한 목판으로 성종 17년(1486)에 성종이 직접 주관해 간행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이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석씨원류> 1절을 가지고 귀국해 인조 26년(1648)에 최서용, 해운법사 등이 다시금 간행한 것이다.

선운사 <석씨원류>는 조선 인조 26년(1648)에 새긴 가로 39cm, 세로 29.5cm의 목판본으로 원래 103매의 목판으로 판각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절반가량이 망실되고 50매 100편의 원판과 별도의 2매 4편이 남아 있다. 높은 가치에도 일부만 남아 평가절하되었다.

영인본 권1~3을 매입하고 마지막 영인본인 권4를 확보하는 대로 원형 복원 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운사의 <석씨원류>가 복원되면 목판인쇄사에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선운사 <석씨원류>는 불암사 판본보다 25년이나 앞서 있다.

목판인쇄사의 귀중한 자료 망실자료 많아 그동안 평가절하

선운사 <석씨원류> 목판본 책의 편제는 글의 위쪽에 그림을 배치하여 아래쪽에 책의 본문이 새겨진 형태로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설판형(圖說版型)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목판인쇄사에서 새로운 편제의 도설판형(圖說版型)을 채택하여 방대한 양의 서적을 간행함으로써 판식과 판화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창 선운사 총무 전성 스님이 영인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석씨원류> 영인본

요한 자료이다. 불암사판 등의 책이 왼쪽 면에 글을 쓰고 오른쪽 면에 그림을 두어 한 항목이 2면을 차지한 양식에 비해, 한 항목의 도설(圖說)이 1면에서 모두 끝나게 하는 편제를 지니고 있다.

선운사 본은 편집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현종 14년(1673)에 경기도 불암사(佛巖寺)에서 새긴 <석씨원류> 목판이 현재까지 완질로 남아 있고 간행시기도 비슷하

여, 유포 당시의 간행내역과 편집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선운사 경우스님은 "우리나라 목판인쇄사에서 새로운 편제의 도설판형(圖說版型)을 채택하여 방대한 양의 서적을 간행함으로써 판식과 판화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안타깝게 원형 일부가 망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이번 영인본을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불교계 네팔돕기 9200여만원 지원

7월 6일 네팔 고르카와 신두발족지역 방문해 전달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를 나누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해공)는 6월 28일 비전사에서 5월부터 모금한 9200여만원을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이번에 모금한 금액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광주지역 사찰, 불교단체, 광주전남불교NGO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각 사찰과 단체에서 모금한 금액을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금액은 지정기탁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직접 지원에 나섰다.

모금행사는 광주 불교계 처음으로 단일 창구를 이용한 공동모금인 의미도 있다.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연광스님(중심사 주지)은 이번 지원에 대해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광주지역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 주셨다"며, "작은 힘이나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소중한 복전(福田)이 되었으면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문영배 빛고을나눔나무 기획팀장은 "네팔의 현지상황에 맞게 긴급구조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피해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이 진행된다"고 말하며, "우기(雨季)를 앞둔 네팔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주

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보수작업에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체 모금한 금액은 광주조계종승보회, 광주비구니회, 백양사, 한마음선원광주지원, 증심사, 법림사 등 사찰을 비롯해 빛고을나눔나무, 자비선행회, 광주전남불교NGO연대,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광주 평등공단에서 근무하는 네팔인 프라카스(36, 한국생활 3년차)씨는 "고향에는 부모님과 아내가 살고 있으나, 이번 지진피해로 집이 파손이 되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제가 사는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복구의 길이 열렸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원은 지정기탁과 직접지원 2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지정기탁은 단체에서 기부 금액을 네팔에서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 더프라이스, 네팔 고아원 등을 통해 네팔에 전달되며, 직접지원은 광주지역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7월 6일 네팔 고르카와 신두발족지역을 방문해 피해가구에 임시주거시설과 학교시설 보수지원금으로 전달됐다.

특히 이 두 지역은 광주에 근무하는 일부 네팔인들의 고향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바라옵니다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3000여 명을 모은 행사로, 6월 30일부터 1박 2일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기원을 위한 3000여 명을 모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에는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성공스님은 법문을 통해 "광주에서 가장 큰 국제규모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며 "이번 행사는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행사로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3000여 명을 모은 행사로, 6월 30일부터 1박 2일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기원을 위한 3000여 명을 모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에는 신도 30여명이 동참했다. 성공스님은 법문을 통해 "광주에서 가장 큰 국제규모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며 "이번 행사는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큰 행사로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 아라메길 친환경 트레킹 코스로 '인기'

서산의 도보 여행길인 아라메길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개 코스, 2개 지선 총길이 88km로 조성됐다. 경사도가 완만한 낮은 평지 위주로 산책탐방로가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제1코스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 84호)을 비롯해,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등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

김정경 서산시 문화관광과장은 "아늑함과 포근함이 담긴 친환경 체형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아라메길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구간별로 시설물을 보완하는 등 아라메길을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불교계 평화의 소녀상 건립성금 전달

연등축제 등서 모금... 시민 추진위 "현재 1억여원 모어"

전북 불교계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전주 풍남문 광장에 건립 예정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전북 불교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스님), 참봉은우리절(주지 회일스님),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관인순 외)등 전북지역의 주요 사찰들과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 사찰들은 6월 30일 그동안 모은 성금을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공동대표 방용승)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선운사 100만 원, 금선암 100만 원, 참봉은우리절 200만 원, 전북불교네트워크 144만 원 등이다. 전북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날과 연등축제 행사에 각각 모금 활동을 펼쳐 성금을 마련했다.

전북불교네트워크 산하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준근) 4기 단원들도 직접

거리모금활동을 펼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주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생명평화 결사운동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소녀상 건립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건립 운동에 늦게나마 동참하게 되어 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용승 공동대표는 "일본의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도 공범이며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 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며 "불교계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성금'은 오는 8월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건립될 '평화의 소녀상'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며 시민추진위는 6월 30일 현재 목표인 5천만 원을 넘어 1억 300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정안사, 주민 위한 약수터 조성

군산 정안사(주지 정안스님)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해 우물과 약수터를 조성하고 6월 26일 헌납식을 개최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인근 대위마을 밭작물 재배가능성은 물론 청암산을 찾는 시민들이 물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정안스님이 우물과 약수터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안정(淨安井)이라 이름붙여진 이 약수터는 인근 주말 농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도 갈모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정안사가 자리잡고 있는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는 전투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넋을



기리는 절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안 스님은 "인근 농가나 운동을 위해 찾는 분들을 위해 약수터를 조성했다"며 "수질검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중고, 이경옥 前 안행부 차관 초청 특강

전북 김제 동국대사범대학부속 금산중·고등학교(학교장 조영석)는 6월 30일 이경옥 전 행정자치부 제 2차관을 초청해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이 전 차관은 '내 인생의 디딤돌과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시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모든 구조역량을 동원하였지만 너무나 어려웠다"고 당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전 차관은 학생들에게 40여년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양한 인생에서 어떠한 환경을 딛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일깨

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사로 나선 이경옥 전 차관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차관보, 안행보 제 2차관 등의 공직생활을 거쳤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자리한 금산중, 고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 선정 혁신학교로서 현재 지역사회 농촌작은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연극, 바이올린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금교실과 기타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에서 칩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사과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 세계최고 1위 명문 국립 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대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시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5 문의처

-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 팩스 : 86-25-84028479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칩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